

1 선거공약 불이행 2 집행부 인사파행 3 재정 후원 미집행

대한배구협회장 불신임 배경은?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 서병문 회장은 왜 탄핵됐을까?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추진한 16명의 산하단체 대의원은 ‘서 회장이 취임하고 5개월이 되었음에도 회장 선거 출마 시 공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였으며, 협회장의 재정적 후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협회의 행정공백이 심각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핵심은 서 회장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협회에 소속된 시·도협회와 산하단체, 생활체육 지도자, 선수, 배구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화합하는 배구협회를 만들겠다’는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퇴진시키기로 약속했던 전 집행부 인사를 부회장 등의 요직에 배치한 것이 한 예인데, 충북배구연맹 박현규 회장은 “서 회장이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체성 없는 인사를 단행했고, 협회는 산하단체에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배구연맹 임금규 부회장은 “서 회장을 추천하면서 ‘집행부의 장기집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협회가 대의원측의 총회 개최 요청을 반려하며 약속했던 회장 간담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협회 측은 총회 개최 요청을 반려한 뒤 “회장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일단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대의원 측 핵심 인사는 “간담회 형식으로 대의원들과 대화하자고 했고, 서 회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1주일 뒤에 지역별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대의원을 모두 모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산에서 4명, 전주에서 2명이 모여 간담회를 했다더라”고 전했다. 한 대의원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기 전에 협회에서 총회를 승인했다면 불신임 안전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뿐만 아니라 김갑제 감독의 사망 사건 처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감독은 10월 이사회에서 집행부 인사에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다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대의원은 “협회의 응급조



중고배구연맹 김광수 회장(왼쪽)이 29일 서울 도곡동 대한배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의 불신임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치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후 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던 김 감독의 장례 절차와 비용 문제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바람에 대의원 측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한 협회 간부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장남의 국가대표팀 단장 선임 등 사건이 발생하자 대의원 측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 이날 총회의 제

3~4안건도 김 감독의 사망, 협회 간부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등 2가지였는데, 집행부 전체가 해임되면서 이 안건들에 대한 논의는 미뤄졌다. 총회 의장을 맡았던 중고배구연맹 김광수 회장은 “새 배구협회장이 선임된 뒤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향후 배구협회 운영 어떻게 되나?

탄핵 무효 가처분 신청 예고…진통 예상

“결과 인정 못해…임원선정 절차상 문제 없다”
법리 다툼만 최소 1년 예상…파벌싸움 양상

대한배구협회 서병문(72) 회장의 불신임이 29일 가결됐다. 탄핵됐다는 얘기가. 문제는 탄핵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탄핵 이후 대한배구협회를 기다리는 것은 혼돈이다.

임시 대의원총회 직후, 서 회장과 연락이 닿았다. 서 회장은 “그랬나? 못 들었나”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총회에 나타나 소명하지 않은데 대해선 “(회장은) 참석 못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에 대해 서 회장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반증했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 회장은 “변호사와 의논했다. 가결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정식재판을 통해서 그래도 잘못했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제 배구인의 일을 배구인들의 힘으로 결정할 단계를 넘어간 것이다.

서 회장은 “(탄핵 사유로) 임원들을 잘못 뽑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내놔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시킨 근거가 잘못됐으니 결과도 무효라는 논리다.

이에 맞서 탄핵을 주도한 측은 가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협회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명목으로 제주시배구협회 홍병익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배구협회의 박용규



서병문 회장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임시 집행부를 발표했다.

협회정관에 따르면, 새 회장 선거를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서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배구계에서는 “법리다툼이 되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다. 여기도 새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도 순탄할지 알 수 없다.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예견하는 우려도 들린다. 탄핵 자체의 순수성도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배구계에서는 “대한배구협회가 구조적 빚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하고 파벌끼리 권력 투쟁만 벌이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대한배구협회가 한지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강경진 감독 선임



강경진 감독

2016리우올림픽 메달 획득에 실패한 배드민턴국가대표팀이 신임 감독을 선임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29일 강경진(43) 대표팀 코치를 감독

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1997 전영오픈 남자복식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정상급 선수로 활약했던 강 신임 감독은 대표팀에서 이용대를 전담 지도했고, 주니어대표팀 감독을 역임하는 등 차세대 감독으로 꼽혀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농구

농구 보며 새해 카운트다운…흥행도 대박 조짐

31일 오리온-SK전 밤 10시 획기적 시도
농구팬들, 새해 이벤트에 매진으로 응답

‘흥행예감!’

2016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2017 KCC 프로농구’ 오리온-SK전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경기는 오후 10시 시작된다. 당초 오후 4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농구장에서 펼쳐보자는 뜻이 모아져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의 ‘새해맞이 경기’가 성사됐다.

●기대 반 우려 반…일단 예매표는 매진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31일 오리온-SK전의 개시시간 변경을 알렸다. ‘획기적 시도’라는 평가와 기대감이 더해졌지만, ‘그 늦은 시간에 누가 농구를 보러 고양까지 가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KBL 관계자는 “연말 이벤트가 워낙 많은데 경기 후 대중교통 이동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도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좋은 반응을 얻어 프로농구의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다행히 ‘흥행훈풍’이 예상되고 있다. 오리온에 따르면, 이날 경기 예매표(2800석)는 28일 일찌감치 매진됐다. 현장 판매분(3200석)만 남았다. 올 시즌 오리온의 홈경기 예매표가 매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트다운 이벤트는?

이날 경기의 TV 중계를 맡은 MBC스포츠플러스는 2017년 1월 1일 0시30분까지 중계시간을 편성했다. KBL과 홈팀 오리온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첫 ‘새해맞이 경기’가 펼쳐지는 만큼 경기 외의 이벤트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 후 오리온은 물론 원정팀 SK 선수단



2016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0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오리온-SK전이 ‘새해맞이 경기’로 펼쳐진다.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출처 | KBL 홈페이지

도 이벤트에 동참한다. 오리온 관계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 시간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는 것이 처음이어서 어떤 이벤트가 어울릴지 이벤트팀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만 즐거워해도 안 된다. 중계까지 나가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 중계를 보는 팬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연장까지 치러져 자정을 넘길 경우에는 심판 재량 하에 경기를 중단하고 2017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실시한다.

●SK의 빛나는 협조

이번 경기는 원정팀 SK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SK 관계자는 “농구 흥행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때 이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SK의 유일한 걱정은 팬들의 귀가였다. 이에 SK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팬들의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새벽 늦게까지 지하철 3호선이 운행된다고는 하지만, 고양에서 서울로 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 귀가 서비스를 신청한 팬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경기’는 구단 내부적으로도 나왔던 아이디어였다. 앞으로 성탄절이나 12월 31일 우리 홈경기가 배정된다면 이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지수야, 프로무대 만만치 않지?

〈KB스타즈〉

긴 시즌 처음…막판 체력 위해 식사량 늘려

KB스타즈 박지수(18·193cm)는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4경기에 출전해 평균 9.25점·10.25리바운드·2.75어시스트로 ‘특급 신인’다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청소년대표팀 합류와 발등 부상으로 프로 데뷔는 조금 늦었지만, 26일 삼성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12점·13리바운드로 첫 더블-더블을 작성하며 성인무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지수는 이런 평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지수는 “고교 시절에는 경기를 몰아서 치르는 편이었는데, 긴 시즌으로 진행되는 프로는 확실하 다르더라. 지금과 같은 경기 스케줄을 소화해본 경험이 없다. 그 때문인지 경기 막판 체력이 확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삼성생명과의 경기 막판에 공격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박지수

이러지’ 싶었는데 체력적 문제였다. 좀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제를 설명했다.

체력 유지를 위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시즌 도중임을 고려해 우선 먹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식사량이 많

이 늘었다”는 박지수는 “아무래도 몸이 힘들니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다. 평소 초콜릿을 즐기지 않는 편인데, 요즘에는 자주 찾게 된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먹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수는 “감독님, 코치님뿐 아니라 팀 언니들까지 나서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며 “체력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팀이 지금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변기훈 꾸준함, SK 부활의 열쇠

D리그 경험 후 슬럼프 탈출

기복 없는 경기력이 관건

SK 변기훈(27·187cm)이 오랜 슬럼프의 터널을 벗어났다. 이제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변기훈은 2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KGC와의 ‘2016~2017 KCC 프로농구’ 3라운드 홈경기에서 3점슛 5개를 포함해 홀로 23점을 올리며 팀의 86-83 역전승에 앞장섰다.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한 변기훈의 맹활약 덕분에 SK도 6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다.

KGC전은 올 시즌 졸권 부침을 겪어온 변기훈에게 귀중한 전환점이다. 외곽슛이 강점이지만, 좋은 슛 감각을 유지하지 못해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3점슛이 터지는 날에는 손쉽게 두 자릿수 득점을 찍었다. 반대의 경우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18일 동부전부터 3경기 동안은 무득점에 그쳤다. 그러던 중 26일 D리그(2군) 삼성전에서 홀로



변기훈

50점을 터트리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를 발판 삼아 KGC전에 팀에 값진 승리를 선사했다. 그러나 변기훈의 슬럼프 탈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 경기에서의 반짝 활약이 아니라 꾸준한 경기력이

본인은 물론 팀에도 필요하다. 변기훈은 올 시즌 20점을 넘긴 경기가 2차례나 있었다. 다만 그 감각이 오래가지 않았다. 금세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부진의 늪에 빠졌다. 결국 스스로 기록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SK 문경은 감독은 “(변)기훈이가 D리그에서 자신감을 얻어왔다. 결국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다”며 “최상위급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률을 높이고 기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기훈도 “앞으로 기복 없이 계속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감)선행이 체력을 안배할 수 있도록 돕고, 팀도 이길 수 있게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